

가군여슈연가



[해제]

이 가사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미 해제 가사로 “어와우리 데동들라 나에말삼 들러보라 너에난 엇 지타가 남조몸◆◆◆◆◆” 가군여슈연가 가사집에 수록된 한글 가사이다.

[원문]

가군여슈연가

어와우리 데동들라 나에말삼 들러보라

너에난 엇지타가 남조몸◆◆◆◆◆

◆산죄로 여조일신◆◆◆◆◆

초판후야 만물이 숨긴중의

오작사람 최영한이

슈화금목 오형중애 예애염치 분명하다

요순공링 정주부조 아동방 오현이며

그나문 영웅달사 천츄에 유명함도

식운을 나섯도다

◆◆◆◆◆리여조 가운인가◆◆◆◆◆

◆이을 원망할고 자탄부리 할지어다

어와 직종남들 우리자탄 들어보라

유명한 다원촌에 청연세음 우리집안

다조전손 슈십여디 혈식군조 멋썬이며

고관디족 멋◆◆◆◆◆열파 원근제족

천◆◆◆◆전거한이 닌길른 지령이나

도물도 변성하고 촌행도 능난하니

인행도 총찬하고 원근사람 부러할제

애둘하다 우리들도 남자몸 삼겨던◆

◆◆◆◆고 반필면에 부모슬하 모혀이서

훈정신정 조심하고 형유열역 글열일너

소연등과 명만천하 부모전에 영방하고

철윤지 늙흔집에 유봉원방 붓◆오며

불열낙호 안일년가

환족사축 그가세 기부학도 능통이요

심견근 사예문에 옛설도 강는하고

초당기도 삼겨서라 연일송죽 북창하에

바둑점도 희릉◆◆삼오애월 늙흔난간

머쥬가효 가독두어 풍월도을 노피보고

조익모심 춘송하영 조식들도 교훈하고

푹발상친 부모슬하 구억구억 거여가며

어진택도 조종할가 만복애 셔린경윤

쫓과갓지 못하거난 여즈된 타시로다
가소로다 우리부모 불민여신 날기울때
남여간 아조업시 쥬옥으로 길너낼제
침션방적 기억즈을 조실 가라칠적
녀중군즈 웅망후고 짓필먹 둔비하여
즈시무가 가라칠제 문중명필 기되로다
심규에 고니길너 닉척편 열여전과
언어염치 횡동거지 낫낫치 가라칠제
투미한 이지묘가 한두번 들어알가
칠나^α 믱을노코 쑤지시다 가라친이
호천망극 부모언득 톱산도 부족이라
고법니 무상후야 이팔이 되듯마덧
명문가족 하흔하냐 반연이 못다가서
듀남가절 복성솟히 지즈우리 밧비한니
연유미장 무철소견 원부모 형지후고
식면부지 남에집의 멧멧이 첫인사요
사사이 조심이라 증문술 안사랑애
즈조즈조 나온소연 분홍충웃 알른할지
염눈으로 살펴본니 얼굴은 알듯말듯
말소릭 구면이라
어와식상 사람들아 남여간 가취법은
뉘라셔 업사리요 니지미로 시집살가
구고시을 효행하냐 동기간에 화목하고
노복을 에흘후며 접빈객 봉제스
덧고보고 견문인가 눈섭솟히 나눈눈치
업향슈속 열늦듯고 가리되로 쫓촉한니
즈에현우 감색하고 범빅◆◆◆아여
반석으로 밧친몸이 호화로이 지니오나
유실 싱각후니 부모싱각 간절하다
식월리 김흠사록 증신들 이질손냐
일연삼탁 육십일과 일평분 십이시익
무시무일 불염이라
날가고 달이가며 봄이가고 가을온니
실술지양 식유운모 추풍이 삼난한니
고향싱각 간절하여 추월양명 삼경야익
후원난간 비겨안즈 고향을 바라본니
청산은 증중이요 푹운니 첩첩이라
바람솟히 저구람은 고향으로 쫓차온가

총간에 저월식은 고향에도 빗치난가
모산모슈 저골쪽은 우리집 잇건만은
이몸이 식갓흐며 나라가 보련만은
가인니 불여조라 말이타국 슈로갓치
싱각한이 멈도머다 이려타시 싱각다가
유슈갓치 가난광음 경조류절 드러쉬나
과흡도다 우리북남 효우도 출린할뿐
제학이 통달흐냐 천심을 요동흐니
어히야 조흘시고 이십전 소연등과
능능하신 흑우풍도 어사화분 흥관대화
동상져 압식우고 청아한 말근곡조
쥌석으로 희롱흐니
삼춘화 윗난노림 만엽이 춤을춘이
요지연북 도화에 턱을선관 노림인듯
우리집 북연연경 어시호 뒤발이라
츄리로 청환흐냐 지위를 도어신후
웅쥬거목 쓰돌두사 회포유경 흐오신니
고초가 무궁이라 가중이 울려홀제
신축원월 초오일은 우리가군 갑연이라
상경하신 우리걸남 월도목 뒤망하여
환턱지속 아득한니 쥬소에 합장축원
심중으로 소사나고 가중의 조흔소식
나날이 웅망턴니 히히라 즐겁도다
일실환몽 다시부러 영덕군슈 지순하여
경방조 나린회보 천은이 망극하고
쾌함도 쾌한지라 심중에 즐겨오미
광심인듯 취심잇듯 이려타시 즐겨할지
우리중남 효우로서 일식동경 ㅅ시흐물
지성으로 간청한이 닌후흐신 어루신니
타인유심 촌탁하와 정일을 흐도말고
일행을 단속흐라 명영을 덧조오미
중심에 즐겨오물 엇지다 기록할고
할한홀부 고은의복 은고사시 흐여보식
금동옥여 압식우고 현인군조 빅횡혀
호기등등 치횡흐니 썩마초 가절이라
납실공한 김흔곳에 송북발이 승사로다
부지군 구정지비 쥬마가편 밧비하냐
고향스천 구어든니 호란용두 눈에익고

울임금교 반가와라 좌우로 슬퍼본이
오연불견 생중촌에 의구문호 변화하다
어서어서 들어가서 상친좌화 비알한후
동기숙질 합석한이 활발한 우리심사
전일노 비할손가 동서로 갈나안조
사렴하던 동기숙질 초리로 모혀들어
형아동심 흥난소리 석일의 듯던비라
손잡고 즐거홀제 관중하신 우리씩남
춘당대 늙흔집의 어쥬을 반취하여
사은숙빅 후신후이 환가선명 황홀하다
만경춘풍 화류중의 일일간진 하엿도다
만인청은 너른길의 향지를 초조와서
가묘의 납빅하고 양당슬전 문안홀지
아역이옹 위관부에 슈려함과 청아한
풍유소리 하날노 나리느듯
현덕후신 우리부모 금식에 드문복역
무흠으로 지닉시와
잇씩의 출난광경 뉘안이 총찬하리
밧기로 바라본니 연석차림 야단일니
운슈병 화문석을 전후로 버러노코
승벽뒤로 초린큰상 너도한상 나도한상
좌우로 버린쥬효 다어이 기록후리
삼손십쥬 불노초난 오릭동암 구히든가
육적의 희골이며 안계생에 화조로다
한슈압두 포도쥬난 이청연니 보럿든가
왕상에 멩잉어와 링동에 설죽순은
옛말노 드러든니 이제다시 보럿슈나
미화국화 오식지난 초륜화기 희롱하고
불한불열 신춘가절 요궁기화 정영하다
홍안씩발 우리부군 상좌에 좌정후고
숙부인 묘서다가 영감것헤
동좌후에 학동고모 연좌하니
영성하신 삼남익분 슈고
강영 연석경세 즐겁기 갓업사나
양위숙부 막막한니 감구지회 업살손냐
동서로 갈나셔서 불노쥬 한병으로
초리로 진빅후에 우리거거 거동보소
씩남에 선관풍도 오식반에 지어입고

등남에 스모관티 오날더옥 광치로다
형지함기 부러좁고 빅발상친
부모슬하 영아갓치 춤을춘이
형지동반 숙질들도 각각으로 상슈하여
한존부어 슈을하소 빅빅축슈 비난이다
빅발상친 우리부모 여남산지 슈을하소
일월갓치 승화하여며 ㄷ빅갓치 슈을하소
천식만시 무강하와 슈고강영 하옵소서
또한잔 현슈하며 빅빅축원 비나이다
인자난 슈하나니 인조하신 우리부모
천중지구 무궁토록 영식안영 하옵소서
인지지 상식로서 빅조천손 하시압고
일향난효 하오시며 게이경복 하옵소서
청상요지 초조가서 왕모도를 썩오리다
십쥬삼손 드러가셔 안게화조 구하리라
소용애 비설어드 구견단사 썩리보식
불노초 썩 여다가 치춘을 나슈리라
식노반애 이실바다 술치화히 드러보식
다시한잔 현슈하며 빅빅축슈 비나이다
천식만시 우리부군 심평일월 조흔썩애
군신제히 다시만나 사직을 도으소서
비황티려 어서하야 군조도장 비난이다
각각다 슈필후이 일종풍악 즐겁도다
슴현육갑 좁혀니여 오음육을 증관이라
고산유슈 말근곡도 초춘빅설 화답하고
이팔청춘 기아들은 춤추고 노리한이
얼골은 도협이요 거람은 연보로다
외당이 오시변객 창안빅발 조흔풍도
치하도 분분하고 현화도 조약하다
그중에 티슈횡차 금일광치 도어난듯
등왕각 찬체든가 인물도 장할시고
모춘삼월 난정회에 어화갓치 모아든가
낙사게 영회난노 인간 못쥬엇내
취흥정 찬치던가 구양슈에 풍유로다
취흥이 도도하고 빅반이 낭조하듯
각썩슈을 순빅한이 일흥도 만코만타
흙사포조 쥬발비난 이티빅 차지로다
문도우안 국미춘은 두즈미 먹던빅요

구월구일 국화쥬난 오류선생 즐긴비라
진일쥬라 하난술은 소동파 초지하고
향기로온 연엽쥬난 틱을선싱 초지로다
힝화촌 괴노술른 노상힝인 초즈가고
신평미쥬 두십천은 함양유렴 맛것도다
내당에 즐거음문 형지숙딜 합식하나
회산담낙 현화한이 빅연삼만 육천일이
이날갓치 즐거우면 여즈한탄 뉘가ㅎ며
무산씨엄 아사리요 석양이 지산한이
원촌에 전역연기 곰곰이 피어나고
숙조난 흘엄한 이동역에
발근달른 은근이 유정하나
등하에 상여ㅎ여 일장허소 석화한이
누기누기 모헛든고
인즈하신 학동고모 동치조흔 죽동이숙
요조하신 남게안숙 화월갓탄 틱동안형
숙여지힝 증견이형 유한정정 표동손지
우리숙듀 에어로서 모여동힝 경석춤에
아람다운 손이로다
구변조흔 내동싱아 어인슈죽 미미하여
좌중딕소 화기로다 초리로 열좌하여
등좌석에 단취한이 천상에
셔왕모가 인간의 하강엇덧
동정선히 안이오며 월궁항아 방불하다
남희에 관음보살 여도사을 기나리고
연화시기 내려와서 속틱을 희롱한듯
동편을 바라본니 슈다한 절문닉들
슈정궁 김흔곳에 화초병풍 돌너치고
보진을 성히ㅎ여 옥경선여 모혀안즈
상데전에 조히ㅎ니 옥딕가 산산고
항이가 낭낭ㅎ다 일당이 못쥬이고
일문이 단히한이 위원에 화슈련가
거룩ㅎ고 증하도다 원하고 원ㅎ누
이자여덜 일평싱의 연연이니
날만나 이번갓치 즐겨보식
그력저력 과일하여 도임걸일 당두하니
일힝발정 하난구닛 과흠도다
우리거거 화려한 슈령힝동

금관요복 현난하고 우리부군 덕감형식
금미화복 흥안척발 조흥도 조혈시고
아롱다롱 단속들언 신신이 꾸며니여
각각소임 분간하여 호기등등 웅위한이
정기고각 일산되난 압으로 인도하고
츄동아 역이십이에 버려서서 진마성 호위한니
변화한고 찰난광치 언언이 식울손가
만인이 추앙하고 횡인이 미무더라
상괴하드 이번거람 역역이 조흔광경
몇날몇칠 즐기다가 각의로 마언몸이
구택총영 분분흔이 뉘영이라 툃만하리
광풍취우 낙화치로 용문산 구람갓치
나날이 헛터지이 헛부다 여조일신
조흔바람 호시절릭 귀령부모 다시하여
명연잇디 진감시에 퉁빅현슈 하여보식
육아중 일너본이 칭아구로 하신연히
갑기을 칭각한이 호천망극 안일년가
쥬조갓치 어진이도 슈무시을 지어신이
우리비록 여지오나 일중가사 업사리요
영산교남 신식데난 오슈마발 단문으로
만분일 기록하고 내먼저 써나간이
창연심스 슈청이라 형아동심 아조믹야
연연불망 우리들리 낙낙동셔로 분좌하여
전전사모 그리다가 천은이 망극하고
호풍이 인도하여 슈월담화 즐겨시나
초별몽중 적실하다 이러타시 모헛다가
분슈족별 아연하다 조흔다시 이빌하고
각기귀가 흥온후에 이가사 징겨두고
시시로 숙독하여 금일면목 기록하소
아역사 상소립고 쥬야장심 불염엇지
못하하장 형형아춤 호헛쑤고 가탄탄이나
형중시여 지리한임 오연츄 동양절을 밀어
원송하고 식히신연도 쑤결의 송겨한니
유슈갓치 가난시일 참으로 싸럼이다
양춘적을 춘몽의 다보닉고
이인간에 삼춘 화발이다
복순풍이라 증증춘일 ㉠화충하여
이화도화 만발하여 오식화초 난향기을

토하난 초시에 부러오난 춘광에
초시난 하절인고 춘삼월 망간이라
명명한 삼오애월 천중에
웃독소사 등하에 상디상디 하여
침층에 언언하여 일중허소
설화하나 전전반측 사모하난 나에형을
불상봉 한이받고 조흔저식 월식도
니안전에 원슈로다 이러타시 싱각한이
인유 발포못할 무심천성 삼지오나
중형중형 언지불고 철운에 사방지회
무시무일 불염싱각 보고져워 간절하나
비도라 가라갈가 가인이 불여조나
총연심사 슈청이고 헛비독좌 쏘이로다
살이 싱각한이 앓고앓흔 안여약회
여광엇취 상삼쳐요
마니망섭 지리지리 호언을 논허십다
형아형아 오형쥬야 근심걱정 원송하고
게시호절 킷디몽을 어더완박
옥동기남을 안아 포퓌여망 개신가
조족삼 쏘청청 분인후
성덕을 가히 천망이 히히한
이거닷도 음이 업스리요
어서어서 초한을 춘설디기 쥬야명천계
기리양축 하나이드 너모나 걱정마시
어서어서 활달한 기남조을 탄싱하여
천의과락 경사랄 도와
창디문호 명망이 ◆◆하여
누디여운 진진하기 원축원축
그다옴은 나문실화 하사이드
우리집별 타소쳐의의 슬푸고 슬푸다
무조하신 양위는 부모반빅 존안빅을사록
누슈여웃 하올듯고
우리집 빅연쥬인 뉘집에 머문난고
아지못 현덕하신 우리부모 각어미싱
미족하시여 과락조황을 모르신고
아모러시느 천식만식 무강하고
송빅갓치 슈얼하시여 퓌평식개 슈이만나
순곤한 우립도타 안과갓치 디여노

경괴락 경사랄 보시옵기 슈아로 축원일식
무용지물 우리사인 부모에에
물라일일 헛썩은 심여만 두어온이
죄롬로 탄식탄식에 싱아구로 하신언히
갑길을 싱각한이 호천각주 안일년가
연유미중 구철어심가질 싱각한이
오중이 녹아녹아 사라지면 사라질듯
복중에 뒸친한을 어난씩 춘실될고
엘가식 지회라
형아 형아야 이가사 불만하기에
투미한 나익지조 필지도 아조업시
총급초하노라
괴괴필척 오쫑 만사오니
관흥티량에 쫑쫑 만드러 견하시요
필적이나 미심데본 다시 징겨두고 살피시오
춘삼월망일리적일뵈거실
소지글시괴무안
적일낙필
하노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